색채를 통해 나타나는 도시이미지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Urban Image through Color

이진영* 김영주**
Lee, Jin-Young Kim, Youngjoo

Abstract

For building an urban image, various elements such as symbolic building, ethnic characteristics, historical background, natural environment, and diverse cultural elements can influence on it. Many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showing their unique urban image reflecting their own culture, history, and aesthetic tastes. Especially color, one of the major design elements, has greater impact than other visual factors to form an urban characteristic. Despite the long history and cultural background, Seoul as a capital city of Korea does not show an unique city image with the perspective of color. Recently, Seoul has been designated as '2010 World Design Capital' and implements various urban design projects. As a leading city of design, Seoul is trying to make its urban identity through the own symbolic environment col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nvironmental color scheme for developing a desirable urban design through sever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Paris, London, Amsterdam, and Tokyo were selected as case cities. Each of the cities showed their ow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ade their unique urban image by appropriate usage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symbolic building, emblem of country, and so on. We need to consider these successful cases to build up the image of Seoul.

키워드: 도시디자인, 이미지, 환경색채, 색채계획
Keyword: urban design, image, environmental color, color schem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의 도시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공급, 확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적인 도시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이 최근 들어 현대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민족적 특성,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 등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색채를 통해 이미지가 전달될 때의 시각적 효과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크며, 적은 비용으로도 도시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색채이론가인 Birren[1]은 환경색채(Environmental Color)란 인간의 안전과 건강,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절된 환경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정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인간과 자연의 균형과 율동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구조물의 추악성을 없애고, 미적가치를 지키는 일은 올바른 색채 사용에 있다고 여겨진다.[2]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색채가 도시환경과 건축물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그 도시의 상징적인 색으로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색채가 갖는 장점과 그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환경에는 뚜렷한 특색 없이 무계획적으로 색채가 사용되어 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품격은 선진국의 70% 미만 수준으로, 서울시민의 80% 이상이 서울시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3]

최근 서울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DSID) 총회에서 '2010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지정되었다. 뉴욕, 런던, 파리 등의 선진국 도시를 제치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디자인적 인프라가 약한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근대화와 산업화가 남긴 부작용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디자인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색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정회원(주저자), 중앙대학교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1) Faber Birren(1900~1988): 색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지식에 정통하여,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활약한 컨설턴트이다. 그는 단지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색채, 비즈니스의 색채, 환경의 색채 등 색채의 응용분야에 뛰어난 이론가이며 실천가이다.
2)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연구보고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5.
3) 백선혜, 라도삼, 여혜진,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정책리포트, 2008.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의 색채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특징적인 색채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을 상징하는 색채[4]를 통해 서울의 고유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디자인도시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환경색채와 관련된 개념 및 의미를 정리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정립한 서울색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도시경관의 색채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어 우수한 디자인도시로 꼽히는 해외 선진국 도시들의 자료를 수집한다. 구체적인 사례도시로 색채를 이용한 가시적 도시이미지 부각효과가 뛰어난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도쿄를 중심으로 각 도시가 보여주는 고유의 환경색채를 조사하고, 사용된 도시색채를 통해 어떠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잘 반영하는 도시로서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의 도시색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디자인의 개념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에는 도시디자인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007년 개정).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도시공간에서 수행되는 공공디자인으로, 공적 영역을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적 디자인 활동”이라 하고, 사적 영역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는 한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였다.[5]

두 가지의 정의를 통해 도시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특성과 문화를 잘 반영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색채의 기능과 환경색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무수히 많은 색채들이 있으며, 그 색에는 나름대로의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다. 밝고 아름다운 색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효과적인 색채 사용을 위해서는 색채의 기능을 잘 파악하여 생리적·정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색채는 인간과 자연,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전체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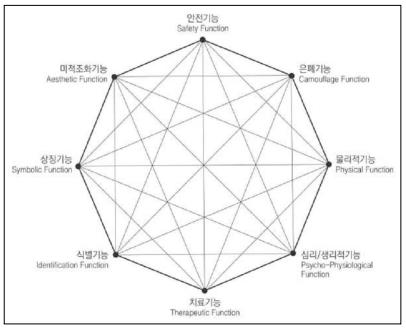

그림1. 색채기능 연관도
(출처: 김길홍, 환경색채계획론, 2001)

3. 서울색

최근 서울시는 ‘2010 세계디자인서울’로 지정되어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디자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의 무계획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서울시의 환경색채를 개선함으로써 고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색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2009년부터 경관색채 체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수행한 한 연구(2008) 결과를 보면 서울 전역의 자연환경색, 인공환경색, 인문환경색의 3개 영역을 구성하는 33개의 세부적인 대표항목에 대하여 9,800여 컷의 이미지를 찾아 측색, 색채분석과 모자이크 분석을 통해 ‘서울현상색 250색’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서울현상색 250색’ 중 특히 시각노출빈도가 높은 ‘지역색 50색’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10개의 색을 ‘서울대표색 10색’으로 선정했다. 이 ‘서울대표색 10색’ 중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청빨간색’을 서울의 상징색으로 지정하였다.[6]

’단청빨간색‘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색으로, 전통 건축물과 오방색에서 추출되었다. 이는 ’생명과 에너지의 색, 무병과 화평을 바라는 기원의 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서울색의 제정은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4)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상징하는 색채인 ‘서울색’을 정립하여 무분별한 도시환경 색채를 개선하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서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색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http://design.seoul.go.kr)

5) 백선혜, 라도삼, 여혜진,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정책리포트, 2008.

6)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보도자료 “서울, 자신의 색을 찾다”, 2008. 5. 23.

갖춰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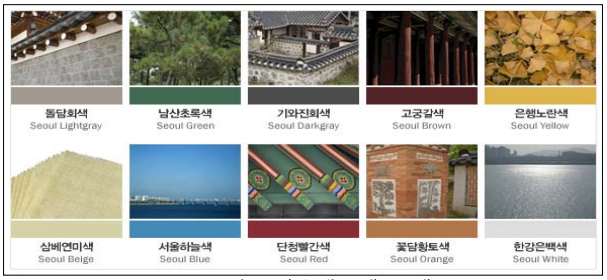

그림2. 서울대표색 10색

(출처: http://design.seoul.go.kr)

III. 색채를 통한 도시이미지

1. 도시와 색의 관계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일컫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풍습과 문화를 반영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는 그 도시만의 성격과 이미지를 차별화하거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색채를 통해 잘 드러난다. 색채는 시각적으로 사물의 형태나 이미지를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으며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색채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건축물, 안내표지판, 공공공간 등 여러 부분에서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채를 통일되게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그 도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지중해의 도시를 떠올리면 하얀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집이 연상되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생각하면 붉은 색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지붕이 떠오르곤 한다.[8]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생각할 때는 서울시만의 독특한 도시적 특성과 문화가 담겨있는 상징적 이미지가 쉽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날 서울 거리의 수많은 간판과 건축물들은 서로 더 돋보이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색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게다가 건물주들은 간판 및 건물의 색채규제와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환경의 색채문제를 일관성있게 다루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는 서울의 중심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여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이 든다. 이처럼 한 도시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는 색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혹은 통일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도시만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이미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용된 색채는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차별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색채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해야 한다.

2. 색채를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 사례

1) 파리의 도시색채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랜드마크(landmarks)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는 시각적으로 가장 잘 눈에 띄고 그 효과가 크다. 프랑스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눈에 띄는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도 있다. 재미있는 점은 중세시대의 화려한 성당과 최첨단 시설의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어, 파리라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파리의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이러한 이미지는 파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1) 빨강, 파랑, 하양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은 바로 퐁피두 센터이며,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건물이다. 퐁피두 센터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의 순색을 사용하여 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흰색을 Base color로 처리하여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한 흥미로운 건축물이다. 외관의 형태는 마치 한참 공사 중인 것처럼 배관 및 내부를 노출하고 있으며, 각종 배관 및 에스컬레이터를 순색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기억 속에 강하게 인식이 된다.

퐁피두 센터에 적용된 색채는 프랑스 국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빨강, 파랑, 하양의 색이며, 이는 국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순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파리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3. 퐁피두 센터와 프랑스 국기의 색채

(출처: http://www.cnac-gp.fr, http://imagesearch.naver.com)

(2) 예술의 거리

많은 사람들이 파리 시내의 다양한 예술품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며 낭만적이라고 느낀다. 그림들은 상점 앞 도로 밖까지 전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구경하며 즐길 수 있다.

---

7) 서울 공식 블로그 http://blog.seoul.go.kr

8) 박영순, 이현수, 김현선, 도시 환경과 색채, 안그라픽스, 2005.

파리는 20세기 예술의 본고장으로 피카소, 마네, 모네, 로댕 등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한 곳이다. 화가들의 작품 속에는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표적인 색채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파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곳의 풍경이나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작품 또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런던의 도시색채

영국 런던은 2012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 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해 왔다. 그 결과 디자인 분야와 같은 창조산업이 해마다 5%씩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도시·건축·디자인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으며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요 랜드마크들의 적절한 보호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2012년 올림픽이 열리기 위한 준비과정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런던이 앞으로 문화수도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1) 주조색인 빨강과 배경색인 회색톤

런던 거리의 곳곳에는 빨강색을 접목하여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빨강색은 영국의 전통색이며, 현재 런던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지하철, 버스 등의 주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상징적인 빨간색을 사용하여 런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빨강색이 돋보이기 위해 배경색은 검정과 회색톤의 무채색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조색과 배경색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형성된 도시경관의 이미지는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림4. 빨강색을 접목한 런던 버스와 티켓 판매기
(출처: http://design.seoul.go.kr)

(2) 새롭게 쓰이는 파랑색

런던의 다양한 시설물 표지판 중 지하철 역명을 알리는 표지판은 1990년대 초반 시당국의 각종 시설물 표지판의 색채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빨강색의 동그라미 형태에 가운데 파란색의 네모 형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색채와 형태의 조합은 런던 지하철 입구 및 지하철 내부 곳곳에 적용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하여 '전통과 첨단의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런던 밀레니엄 돔, 런던 타워힐과 같은 건축물에 빨강과 파랑을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9)]

그림5. 지하철 표지판과 지하철 내부 시설물의 색채
(출처: http://design.seoul.go.kr)

3) 암스테르담의 도시색채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항구 도시로 운하를 따라 다양한 색채의 건축물들이 줄지어 서있는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거리 곳곳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또한 세계적인 튤립축제와 베아트릭스 여왕을 존경하기 위해 지정한 '여왕의 날' 축제, 그리고 축구경기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오렌지색의 옷이다.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만큼 협소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계획 시에도 참고할 만한 좋은 예들이 많은 곳이다.

(1)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

바다의 파란색과 조화를 이루어 시원한 느낌을 한층 더해주는 색채는 흰색이다. 이탈리아의 지중해 섬들의 희고 네모난 건물들처럼, 항구도시인 암스테르담에서도 흰색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흰색 건물과 푸른 바다, 하늘과의 대비를 통해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건축가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빌라 사보아 주택이다.

(2) 통일된 형태와 다양한 색채

암스테르담 운하주변과 보르네오 지구에 빽빽하게 들어 있는 주택의 모습은 감각적인 색채와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각각의 색채가 모두 다양하지만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건축가의 개성과 독창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형태와 마감재 및 창호의 색을 통일하여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림6. 다양한 색채와 통일된 형태의 주택

9) 함나영, 도시와 디자인 그리고 COLOR; 디자인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건설기술 쌍용, 2008.

(출처: http://design.seoul.go.kr, http://blog.daum.net/dufresne)

4) 도쿄의 도시색채

1964년 도쿄올림픽 직후 간판과 도시 미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 고유의 색과 이미지를 정하고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관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쿄 상공회의소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컬러코디네이터 공인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제품 및 환경색채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 일본의 색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1)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경관색채 기준

도쿄의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의 경관시책을 재구축하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수도 도쿄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환경색채 사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신설 및 외벽의 색채 변경 시 신고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어 그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색채 적용 기준은 주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원색에 가까운 색채는 피하고, 하늘이나 수목의 초록색, 흙이나 돌 등의 자연색과 잘 어울리는 난색계, 저채도 색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역 및 바다나 녹음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자연소재를 활용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7. 온화한 난색의 건축물이 늘어선 경관
(출처: 일본의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2)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산업이 약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공미술이 도시 곳곳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도쿄의 어디에서든 잘 디자인된 공공시설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드는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공적인 노력이 저변에 깔려있다. 롯본기힐스나 가나자와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밌고 다양한 형태의 벤치와 전시물들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림8. 롯본기 거리의 아트펜스와 벤치
(출처: www.samsung.co.kr)

Ⅳ.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가 디자인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시색채를 이용한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의 색채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의 올바른 도시색채 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리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국가의 이념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건축물에 적용시켜 이목을 집중시키고,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해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런던은 2012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문화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전통적 색채인 빨강색을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적용시켜 주목성의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구도시라는 자연환경을 인공환경과 적절히 조화시켜 다양성 속에서 통일감을 추구하려던 암스테르담의 공동주택들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가장 본받아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색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아 다양한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산업을 통해 함께 만드는 도시디자인 문화를 이끌고 있었다.

해외 선진국의 대표적인 4개 도시 사례를 통해 각 도시의 이미지는 자연환경 요소, 역사적 배경, 민족적 특성, 사회적 배경, 다양한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이미지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실패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민들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색채특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빽빽하게 들어선 무질서한 건물들과 특징 없는 공공 시설물들, 조화와 통일성이 없는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서울의 이미지를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문화와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색채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색을 개발하였지만 이것은 아직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인 올림픽 등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

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디자인 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창의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관련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도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우고, 통합하고, 더불어 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자연환경보다는 인공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작게는 그 속에서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으며, 거시적으로는 도시이미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환경에서 색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아라, 라도삼,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전략과 서울컬쳐노믹스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4호, 2008, pp.23~37.
2. 백선혜, 라도삼, 여혜진,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정책리포트, 2008.
3. 함나영, 도시와 디자인 그리고 COLOR; 디자인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건설기술 쌍용, 2008.
4.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5. 일본의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6. 박영순, 이현수, 김현선, 도시 환경과 색채, 안그라픽스, 2005.
7. 조현주, 이광훈, 정혜민,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시그마프레스, 2006.
8.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 http://design.seoul.go.kr
9. 서울 공식 블로그 http://blog.seoul.go.kr